

“여성인력 원지않는 사회구소가 문제”

새권강
91.1.26

여성인력과견업체 ‘여성자원금고’를 찾아

사장돼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사회에 활용시키자는 취지로 세워진 ‘여성자원금고(대표 김근화)’가 지난해 9월 문을 연 지 4개월만에 1천명의 회원을 확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여성자원금고’는 전문능력을 갖춘 여성과 전문인력을 원하는 기업체를 연결하여 소개시켜주는 여성전문인력과견업체.

김대표를 주축으로 외국인회사도서실장, 외국계은행 인사부장, 의사, 주부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다.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자원금고’의 김대표는 여성 인력을 원치않는 사회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7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넘게 여성부장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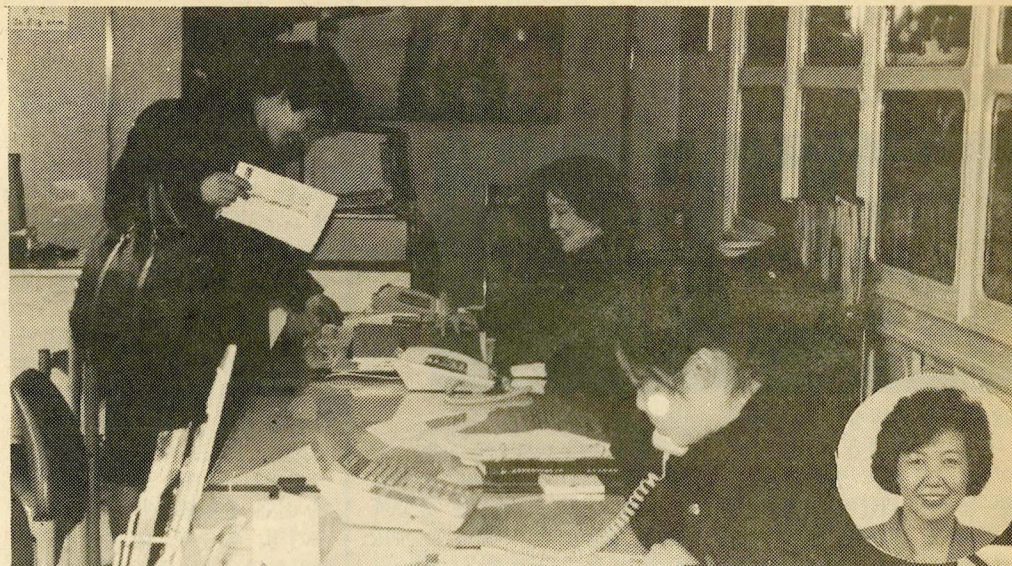
‘여성자원금고’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회원은 1년에 1만원의 회비를, 단체회원(기업체)의 경우는 1년에 10만원의 회비를 내야한다.

이곳에서는 회원의 구직, 구인 활동을 위하여 상담, 자문, 안내, 정보제공외에도 회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전문기술 훈련과 재교양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여성자원금고’는 정보처리, 통역, 번역, 속기, 전문비서직, 도서분류, 시장조사및 분석, 레크레이션지도등 세분화된 전문인력을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특히 레크레이션 지도요원 파견의 경우, 해외 귀국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유학자의 부인들을 취업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여성자원금고’의 직원 김규선씨는 “이곳을 찾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자녀를 다키워놓은



여성전문인력을 사회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원내는 김근화 대표

회원제로 운영...주부들에 인기 구직정보 뿐아니라 기술훈련도

가정주부들입니다. 이는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을 통해 회사에 입사하게된 주부 김미숙씨(31, 고려시멘트 연구소 근무)는 “처음

에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척 걱정되었지만 막상 회사 생활을 하다보니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뿌듯해 했다.

현재 이 ‘여성자원금고’에는 교수나 저술가들이 자신의 서

재에 쌓여 있는 도서의 분류작업이라든지 번역, 통역등을 담당할 여성인력을 소개해 달라는 등의 의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세계은행에서도 고급여성전문인력들을 파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국외적으로도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자원금고’는 이런 국내외의 요망에 발맞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직종뿐 아니라 사회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대표는 “사회구조가 점차 전문화·세분화되면서 각종 분야에서 전문인을 원하게되기 때문에 학력·성적등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실무능력이 더욱 중시된다”고 강조했다.

‘여성자원금고’는 또한 여성 소경영사업자들에게 담보없이도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여성은행’개설도 준비하고 있다.

‘여성은행’은 자원금고 회원들과 여성재력가들이 공동출자한 ‘신용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1차 이사모임은 마친상태로 3월중 발족을 서두르고 있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던 것을 쉽게 함으로써 여성자립가들에게 자금마련의 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성주 기자〉